

Rimerella anatipesti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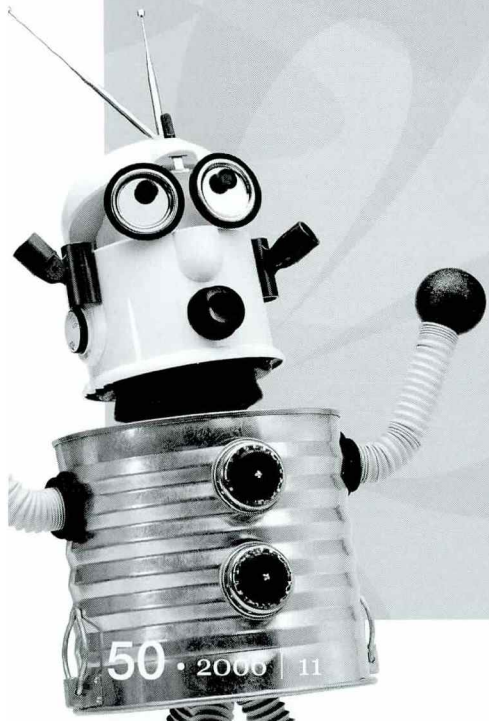


# 오리패혈증 바로 알기

현재 국내 오리농가에서 오리패혈증(Rimerella anatipestifer)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오리패혈증은 3~5주령 사이의 오리에서 다발하며 주로 호흡기나 상처난 피부 등을 통해 전염이 되는데 심한 경우 폐사율이 75%까지 이르는 질병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위생적 사양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환기를 하고, 더위나 추위, 밀집사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며, 이는 기타 모든 질병의 원인을 예방하기도 한다.

## 오리패혈증 제대로 알기!!

■ 오리는 용도별로 난용, 육용, 난육겸용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육용종 위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주로 사육되는 육용종 오리는 페킨(Pekin)종이다. 육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오리의 종류에는 페킨(Pekin)종, 르왕(Rouen)종, 머스코비(Muscovy)종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페킨종을 주로 사육하고 있다. 페킨종은 대표적 육용오리로서





영국에서 육종된 페킨종은 47일 만에 3kg이상 자랄 수 있다고 한다. 이 페킨종은 조숙종에 속하며 가슴살의 발달은 좋으나 지방이 많은 것이 결점을 지적되고 있다.

- 오리의 리메렐라 감염증은 오리에 있어 바이러스성 간염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질병이다. 오리패혈증(리메렐라 감염증)은 세균성 질병으로서 현재 바이러스성 질병인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과 더불어 오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질병이며 오리에서 급성 혹은 만성적으로 질병을 유발한다.

- 오리의 리메렐라 감염증은 1932년 페킨종의 오리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1932년 미국 뉴욕주에서 사육하던 3주령의 어린 페킨종 오리에서 처음으로 패혈증이 보고되었으며 ‘새로운 오리질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후 ‘아나티페스티퍼 패혈증’, ‘전염성 장막염’, ‘아나티페스티퍼 증후군’ 등의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 오리의 리메렐라 감염증은 어린 오리에서 발병하며, 보통 3~5주령 사이의 오리에서 가장 높은 폐사율을 나타낸다. 5주령 이하의 어린 오리에서 발생시 임상증상을 보인 후 보통 1~2일 만에 폐사한다.

- 오리의 리메렐라 감염증에 감염된 오리는 뇌막염을 유발하여 신경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오리 패혈증에 감염된 오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있

거나 사료나 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태로 점차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립불능에 빠지게 된다. 부검소견으로는 노란색의 섬유소성 심낭염, 간포막염, 복막염 등이 관찰되며 기낭이 혼탁해져 있는 경우도 많다. 머리가 등쪽으로 휘어지는 사경증상을 나타내는 개체의 경우 뇌막염이 관찰될 수 있으며 뇌조직에서 특징적인 병변이 관찰된다.

- 오리 리메렐라 감염증의 원인균은 리메렐라 아나티페스티퍼(*Rimerella anatipestifer*; *R. anatipestifer*)로서, 그람음성 간균이며 혈액배지나 TSA배지에서 자라며 5% CO<sub>2</sub> 를 공급하면 더 잘 자란다. 맥컨키 배지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균 집락의 형태나 성장속도는 균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며 보통 48~72시간 정도 지나야 정확한 균 집락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 오리패혈증의 원인균인 *R. anatipestifer*는 기본적인 생화학적 성상으로 옥시다제 양성과 인돌 음성 그리고 카탈라제 양성의 성상을 지녔다. 또한 황화수소를 생성치 않고 운동성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리메렐라균의 혈청형은 21개이며, 질병을 유발한 균의 혈청형과 백신주의 혈청형이 서로 다를 경우 방어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의 경우 보통 3개의 혈청형이 혼합된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